

놀라운 구원의 은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 : 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 :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이 말을 그의 서신의 첫머리에 넣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렇게 원합니까?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온갖 좋은 것을,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이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받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반대되는 말이 공로(merit)라는 말입니다. 공로에 의해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에 의해, 수고의 대가로 무엇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공로에 의해서가 아닌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지, 공로에 의해 구원을 받는지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life style 을 간단히 요약하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 기독교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성화의 과정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닮아 나날이 변화해 가며, 옛사람의 능력이 아닌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powerful 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에 있어서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성화 받은 정도는 모든 기독교인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성화받은 정도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을 다음의 네가지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2. 구원을 값없이 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 구원을 값없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건없이 준다고 하는 것인가?
4. 구원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누리는 은혜에 대하여

그러면 먼저 우리는 과연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제가 먼저 한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의 이름을 따라 그의 이름도 사울이라고 지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인데다가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20 대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학자에게 보내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은 예수라는 젊은 사람으로 인하여 시끄러웠습니다. 이 예수의 가르침은 전통적 유대인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죄로 받아

들어졌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는데 선봉에 섰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어떤 때는 죽이는 것도 불사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죄인 괴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의 영광과 은총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남다른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도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는 그 감격을

디모데전서 1 : 13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공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디모데전서 1 : 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 : 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 1 : 16 그러나 내가 공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전서 1 : 17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이다 아멘 고백했습니다.

Amazing Grace 의 작자인 John Newton 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영국 사람인 그는 선장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청년 시절 몹시 거친 최악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해군에 입대되었다가 탈영하여 붙잡혀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다가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거칠고 난폭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동물 중에 제일 무서운 동물이 무엇이냐 하면 윤리를 잃어버린 사람 동물입니다. 피도 눈물로 없는 노예 상인으로 지냈습니다. John Newton 은 행위로 따지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대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구원해주셨습니다. 1747 년 영국으로 향하던 배가 북대서양에서 극심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알았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그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그를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새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능력 있는 복음주의 목회자로서 일했습니다.

자기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여, 작곡한 노래가 Amazing Grace 입니다. (우리 찬송가 405 장 한번 부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 이 말 안에 John Newton 의 인생의 슬픔, 고뇌,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참으로 가치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실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잘했다고 내놓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받았습니다.

두번째로

2. 구원을 값없이 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값없이 거저 준다고 하니깐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을 값없이 거저 준다고 하니깐 귀하지 않아서 거저 주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거저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 할 수 없어 거저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어렵게 돈을 벌어 자수성가한 사람에게 누가 전도를 하였습니다. 구원을 거저 받는다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여태까지 귀한 것은 힘들게 일해 수고해서 얻었지, 거저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끝까지 돈을 내고 구원을 받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 전도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거저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느냐’ 고? 그 사람은 정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당신은 공기를 돈주고 사서 마셨느냐’ ‘햇빛을 돈주고 샀느냐?’ 고 물으니까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진짜 귀한 것은 값으로 칠 수 없기 때문에 거저로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칠 수 없어 은혜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 자기 부모를 돈주고 샀다는 말 들어 봤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직도 공짜로는 미안해서 못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팔자가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사람도 구원을 공로로 얻으려 하는 분이 없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이유는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구원을 돈주고 산다면, 비싸게 지불한 돈의 액수에 따라 자랑과 시기, 질투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러워 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사기 위해 도둑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까지 착한 일을 많이 해 구원을 잘 받았는데 오늘은 죄를 저서 지옥으로 갑니다. 내일은 운이 좋아 천국행입니다. 모래는 지옥입니다. 일평생 천국으로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니 정신이 없어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해서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누가 천신만고 끝에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칩시다. 얼마나 뽐내며 지옥 갈 사람들을 비웃을 겁니까?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입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입니다.

에베소서 2 : 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 :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세번째로

3. 구원을 값없이 준다고 하는 것을 조건 없이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값없이 준다는 말은 조건 없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줄 수 밖에 없지만, 조건 없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 : 40 --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¹⁾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초대를 믿음으로

받아 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면서,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적 개혁신앙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 때의 일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기도처를 찾기 위해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가,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13-14 에서

사도행전 16 : 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 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사도행전 16 : 14 두아디라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인 여자들이 많았지만, 오직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만을 하나님이 열어 주시어, 바울의 말을 믿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자주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시니,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마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얻는 믿음은 원인도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역사하여, 꼭 굴복하게 하여 구원해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을 마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얻는 믿음은 원인도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8 에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네번째로

4. 저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 므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므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의 손자로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하였으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목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가 되어 아름다운 우정을 나눕니다. 므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왕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 난후(삼상 31 장),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극진히도 보살피 줍니다. 다윗왕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하여, 므비보셋에게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 은총을 누리게 해줍니다(삼하 9:13). 이것은 왕자의 신분으로 여겨 주는 것과 똑 같습니다(9:11).

므비보셋은 왕자도 아니면서, 항상 다윗 왕의 상에서 그와 함께 먹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울왕에게 속하였던 것을 모두 다 그에게 돌려 주고, 시바라는 종을 붙여 그를 섬기게 합니다. 므비보셋은 감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 : 8 -- 이 종이 무엇이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기서 므비보셋은 무슨 자격이 있길래 것처럼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까?

저는 얼마전 클린턴 대통령의 정치 헌금을 모금하는, 디너 파티 광고를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만불을 내면 클린턴 대통령과 한 table 에서 먹는다고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만약 누가 만불을 내고 클린턴과 한 table 에서 식사를 하였다면, 그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사진을 찍어 확대하여 큰 액자에 넣어, 자기네 집 living room 에 걸어 놓고, 가보로 남긴다고 법석을 떨 것입니다. 여기서 만불을 내고 대통령의 table 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공로에 의해 앉는 것입니다. 만불을 낸 공로로 취득한 권리에 의해, 대통령과 한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비보셋은 아무 돈도 내지 않고, 특별한 공로도 없이, 다윗왕이 베푼 은혜에 의해, 다윗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공로도 없이 자격도 없이 므비보셋이 얻은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아들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앉을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 줍니다.

여러분과 내가 브비보셋처럼 아무 공로없이 아무 자격도 없이, 만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은혜로 아들로 앉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왕과 므비보셋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언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는가요?”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구원받아 중생한 사람의 영(靈)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 : 5 -6 은,

에베소서 2 :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 :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우리의 영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위에서 사는 동안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써 살아야 합니다. 생명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에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런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다.

이런 놀라운 자격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믿음에 굳게 서야겠습니다.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에 확실히 서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앉고, 서고,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

성령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며,

능력있게 역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 하세요
(twitter 안에서 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